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종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자영업자 등 126만명 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 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달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건설·제조업자(15만명) 및 음식·소매·숙박업(110만명)이다.

단, 신고는 예정대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 연장받은 사업자 125만명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연장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3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중 사업상 어려워 체납한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간 압류·매각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수출 개인사업자 5000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납부기한 연장을 표기해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다.

###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

### 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 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과다공제한 근로자에 대해 정정신고를 7일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22%(454만명)가 종합소득세 신고자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 놓친 게 있다면 꼼꼼히 살펴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